

제73주년 개교기념식 치사

“캠퍼스 곳곳에 유연한 변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국민 가족 여러분!

우리 국민대학교의 개교 73주년을 모든 국민 가족 여러분과 함께 축하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대학은 해방 직후인 1946년에 신익희 선생께서 나라 건설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초창기에 우리 학교는 여러 사정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꼭 60년 전인 1959년에 성곡 선생님이 재단을 인수하셔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북악산 너머 창성동에 있던 우리 학교가 이곳 북한산 자락으로 옮겨온 지도 벌써 48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학은 이곳에서 종합대학교로 승격되었고, 학생 수가 2만여 명이나 되는 큰 대학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 대학은 정부와 여러 기관의 평가에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될 정도로 탁월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임홍재 총장님의 취임으로 우리 학교는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우리 학교가 이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역대 이사장, 총장, 교수, 직원 그리고 동문 여러분의 헌신 덕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의 주인공인 재학생들의 열정 덕분입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장기 근속상, 공로상을 받으신 교수, 직원 선생님들께도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경직된 의식을 깨고 시와 음악 그리고 웃음이 가득한 축제 같은 개교기념 행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생일잔치 기분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장 치사도 생략했습니다.

이런 유연한 변화가 앞으로 캠퍼스 곳곳으로 확산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민대학교의 개교 73주년을 여러 국민 가족들과 함께 축하합니다.

국민 가족 여러분,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하십시오.

고맙습니다.

2019년 10월 17일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 김지용